
정책참고자료

2017-1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4
------------------------	---

2 국민권익위원회

6·25 참전 했다면 당시 소속 관계없이 유공자 인정해야	6
---------------------------------	---

3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 가뭄 현장(서산 대호호) 방문	8
---------------------------	---

4 교육부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농산어촌(1207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321개) 중학교 및 특수학교(20개)까지 지원 확대	10
--	----

5 미래창조과학부

창업관련 법률지식, AI 학습용으로 제공된다	17
--------------------------	----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관, 관광업계와 간담회 개최	21
----------------------	----

7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으로 스타트업 하라! 청년 창농에 50억 투자	23
-----------------------------------	----

8 환경부

이낙연 총리, 첫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최	28
가뭄 추가대책 추진하여 전국적 가뭄피해 확대 방지에 총력	

9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정보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문제 해결” _____ 35

10 여성가족부

전문가의 자녀 양육정보,
정기적인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_____ 37

11 국토교통부

평창 올림픽 지원도로 여름 휴가철 추석 이전 속속 개통
6월 말 동홍천~양양·9월 안양~성남 고속도로 개통 등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 _____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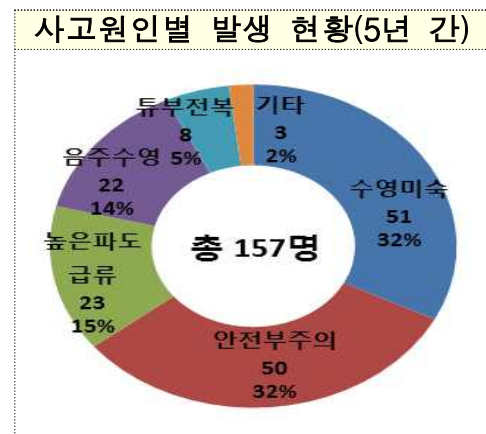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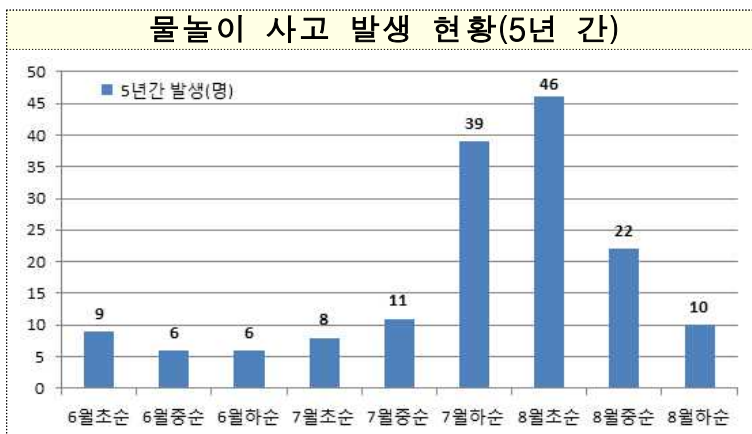
12 해양수산부

전 세계 해사분야 전문가 모여 해사 미래 논의한다 _____ 42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 주간[6. 25.-7. 1.] 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둘 것을 강조했다.
- 지난 5년 간('12년~'16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물놀 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2년 25명, 13년 37명, 14년 24명, 15년 36명, 16년 35명
- 물놀이 사고는 6월부터 8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4%(85명)를 차지한다.



- 원인 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2%(51명), 안전부주의가 32%(50명)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23명)나 되었다.
- 따라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시행하면 된다.
- *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 처치 기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 가슴 압박 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의 경우 약 5cm 깊이로, 소아는 4~5cm 깊이(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로 눌러야 한다.
- 국민안전처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6·25 참전 했다면 당시 소속 관계없이 유공자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한 국가보훈처 처분 취소

- 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A씨의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가 사망한 뒤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참전유공자로 다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수령한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6·25전쟁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했다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A씨가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A씨의 소속을 면사무소가 아닌 '철도청'으로 기재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참전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03년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A씨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6·25 전쟁 기간 동안 실제 소속이 면사무소로 참전사실확인서상의 철도청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고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며, 국방부 장관이 A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한 만큼 A씨의 6·25 전쟁 당시 소속에 상관없이 참전 사실만 확인 되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고인의 참전사실 진위여부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 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처분 기관이 적극적인 입증 없이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2차관, 가뭄 현장(서산 대호호) 방문

- 근본적 가뭄대책 예산 적극 지원, 올해 가뭄피해 최소화 노력 -

< 현장방문 개요 및 참석자 >

- ▶ 일시.장소 : '17.6.23.금) 09:30~11:00, 충청남도 서산시 대호 담수호
(대호담수호 배수관문관리소, 대산산업용수센터)
- ▶ 주요참석자 : (정부)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국장,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 등
(충남도) 부지사, 서산시장 등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가뭄피해 및 지원현황 파악을 위해 6.23.(금) 충청남도 서산시 대호 담수호를 방문하였다.
 - 대산산업용수센터에서 가뭄피해 현황 브리핑을 받고, 피해농민 및 산단 관계자들의 건의사항 및 정부 가뭄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김 차관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가 및 대산산업지역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 ① 6월 22일 발표한 '가뭄 대응상황 및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
 - ② 가뭄 대책 관련 예산이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 할 것
 - ③ 반복된 가뭄대책에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가뭄대책의 성과를 점검할 것

④ 가뭄에 사전적.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용수공급 능력 확대 및 용수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 지원할 것

□ 기획재정부는 ‘책상위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현장의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농산어촌(1207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321개) 중학교 및 특수학교(20개)까지 지원 확대**
- 2017년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발대식 개최 -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7.6.20.(화) 11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7년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발대식을 개최한다.

※ 행사계획 [첨부1] 참조

<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

☞ 진로체험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벽지, 농산어촌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문 직업인 멘토가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체험처로 찾아오는 형태로 진행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이번 발대식은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110여 개 참여기관에 ‘위촉장’ 과 ‘참여기관마크’ 를 수여하고, 그 동안의 노고와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참여기관을 신규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 '15년 시작된 이 사업은 해마다 진로체험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대상을 확장해왔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고려하여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
- 올해는 전국 읍면 소재 중학교 전체(1,207개)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평균 체험활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도시 일부 중학교(321개)를 선별해 1교당 1회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 특수교육대상 및 다문화가정 학생 등 수요자 특수성을 반영한 진로체험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학교('17년 하반기 20개 예정)로 찾아가 진로체험을 제공한다.
 - 또한, 다양한 전문 직업인 멘토 및 특화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전문위탁 운영기관을 3개로 확대했으며, 총 10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첨부2] 참조

< 연도별 운영현황 >

연도	'15년	'16년	'17년
지원대상	[385 개교] • 읍면소재 중학교 일부	[1,206 개교] • 읍면소재 중학교 전체	[1,548 개교] • 읍면소재 중학교 전체 1,207개 • <u>중소도시 중학교 일부 321개</u> • <u>특수학교 일부 20개</u>
지원실적 (계획)	[385 회]	[1,367 회, 68,922명]	[1회 이상 지원(예정)]
참여기관	[44 개] • 전문위탁 운영기관 1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공부문 37 개 ※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청 등 • 민간단체 6 개 ※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정몽구재단, MBC, 삼성디스플레이(충남) 등	[111 개] • 전문위탁 운영기관 2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 공공부문 101 개 ※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청 등 • 민간단체 10 개 ※ 현대차정몽구재단, 삼성생명, 카카오, BNK부산은행, CJ그룹, LG전자, NH농협은행, 네이버 등	[107 개] ('17.6.9. 기준) • <u>전문위탁 운영기관 3개</u> ※ <u>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법교육센터(자녀안심학교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u> • 공공부문 92 개 ※ '16년 참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u>민간단체 12 개</u> ※ 위스타트, 카카오, 가미골농촌체험마을, 넷강마을, 더케이스드에이지, 동아제약(천안) 등

□ 운영방법도 1회 1교 방문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한 학교로 모여 여러 가지 진로체험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 ‘미니 페스티벌’ 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 연간 22회, 전국 90 여개 중학교 지원, [첨부6] 참조

<참여기관 마크 및 현장스캐치>



※ [출처] 유튜브 『교육부』 채널의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홍보영상

-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지역적 한계에 따른 체험기회 격차해소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다문화·탈북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꿈꿀 수 있도록 중앙 부처, 공공기관, 대학 및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다.

□ 행사개요

- (목적)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를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격려하고, 신규 참여기관의 모집 및 진로체험 운영 확대 추진
- (일시) '17.6.20.(화), 11:00~13:30 < 2.5시간 >
-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주최/주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참석대상) 중앙부처(청), 공공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대학, 민간단체 등 참여기관 담당자 100여 명
- (주요내용) 위촉장 및 '참여기관마크' 수여, 우수사례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



□ 행사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1:00	(30')	• 참가자 등록	
11:00~11:05	(5')	•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11:05~11:15	(10')	• 인사말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15~11:30	(15')	• 위촉장 및 참여기관마크 수여 ※ 사진촬영	교육부
11:30~11:50	(20')	• 우수사례 공유 - 직능원, 경상대, 법무부(법교육센터)	
11:50~12:00	(10')	• 체험버스 운영 안내 및 질의응답	교육부
12:00~13:00	(60')	• 오 찬	

첨부2

'17년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참여기관 ('17.6.9. 기준)

순번	구분	기관명
1	공공기관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	공공기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3	공공기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4	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5	공공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자료관
6	공공기관	무안소방서
7	공공기관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8	공공기관	부산솔로몬로파크
9	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공공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11	공공기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12	공공기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3	공공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14	공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본사)
15	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16	공공기관	한국조폐공사
17	공공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	공공기관	호남지방 통계청
19	중앙행정기관	경인지방통계청
20	중앙행정기관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21	중앙행정기관	동북지방통계청
22	중앙행정기관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23	중앙행정기관	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
24	중앙행정기관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25	중앙행정기관	동북지방통계청 영월사무소
26	중앙행정기관	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
27	중앙행정기관	법무부(중앙본부, 법질서선진화과)
28	중앙행정기관	북부지방산림청
29	중앙행정기관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30	중앙행정기관	영월국유림관리소
31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처
32	중앙행정기관	충청지방통계청
33	중앙행정기관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34	중앙행정기관	충청지방통계청 서산사무소
35	중앙행정기관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36	중앙행정기관	통계교육원
37	지방자치단체	강진소방서
38	지방자치단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39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
40	대학 등	가톨릭관동대학교
41	대학 등	강동대학교 (물리치료과,보건의료공학과,뷰티코디네이션과,사회복지행정과,주얼리디자인과,창업경영과,컴퓨터정보과,항공관광과)
42	대학 등	강원관광대학교

43	대학 등	경기과학기술대학교
44	대학 등	경기대학교
45	대학 등	경남대학교
46	대학 등	경북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
47	대학 등	경상대학교
48	대학 등	계명문화대학교
49	대학 등	공주대학교
50	대학 등	국립부경대학교
51	대학 등	군산대학교
52	대학 등	대구보건대학교
53	대학 등	대전대학교
54	대학 등	대진대학교
55	대학 등	동서울대학교
56	대학 등	동신대학교
57	대학 등	동주대학교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58	대학 등	명지대학교
59	대학 등	목포대학교 (입학사정관실)
60	대학 등	삼육보건대학교
61	대학 등	서라벌대학교
62	대학 등	서울여자대학교
63	대학 등	서원대학교
64	대학 등	신문대학교
65	대학 등	성신여자대학교
66	대학 등	세경대학교
67	대학 등	수원여자대학교
68	대학 등	숙명여자대학교(입학처)
69	대학 등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70	대학 등	순천향대학교
71	대학 등	신구대학교
72	대학 등	신성대학교
73	대학 등	안동과학대학교
74	대학 등	안동대학교
75	대학 등	연암공과대학교
76	대학 등	오산대학교
77	대학 등	용인송담대학교
78	대학 등	우석대학교
79	대학 등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80	대학 등	원광대학교 LINC 사업단
81	대학 등	원광보건대학교(자유학기제)
82	대학 등	유한대학교
83	대학 등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84	대학 등	인제대학교
85	대학 등	인하공업전문대학
86	대학 등	전남과학대학교 평생국제교육원
87	대학 등	전주대학교 LINC 사업단
88	대학 등	제주대학교
89	대학 등	창녕군충효관
90	대학 등	창원대학교

91	대학 등	춘천교육대학교
92	대학 등	한국영상대학평생교육원
93	대학 등	한밭대학교
94	대학 등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95	대학 등	홍익대학교
96	민간기업	Kakao(카카오)
97	민간기업	가외골농촌체험마을
98	민간기업	넷강마을
99	민간기업	동아제약(주)천안공장
100	민간기업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수원)
101	민간기업	연천새동지마을
102	민간기업	영광내산서원보존회
103	민간단체/개인	(사)위스타트
104	민간단체/개인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105	민간단체/개인	사단법인 꿈디자인
106	개인사업장	더케이스드에이지
107	개인사업장	삼송마을

창업관련 법률지식, AI 학습용으로 제공된다

- 미래부, 법률·특허·일반상식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과제를 선정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제는 유망산업분야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인공지능 기술 및 응용서비스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 올해에는 인공지능의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인 특허, 법률, 일반상식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공모·접수하였으며, 총 11개 신청 과제 중 4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 신청과제 수 : 특허 2개, 법률 4개, 일반상식 5개 / 경쟁률 2.75:1
- 6월 15일(목) 오후 4시부터 개최될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4개 기관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과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특허분야에 선정된 (주)광개토연구소는 전기·전자분야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특허 유망기술 예측, 특허가치 평가 등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분야에 선정된 (주)와이즈넷은 창업인허가 및 교통사고 분야의 생활·법률 용어사전과 법령·판례 등이 포함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법령정보 추천 서비스, 법률상담 챗봇 등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상식분야에 선정된 (주)마인즈랩은 활용도가 높은 한국어 위키백과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개방하여 인공지능 비서, 교육용 챗봇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일반상식분야에 선정되어 한국인의 얼굴, 한국 음식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본인확인 기술과 음식검색·식단추천과 같은 음식이미지 인식기술 등 **국내환경에 특화된 시각지능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이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1. 2017년 지식베이스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계획
2.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 과제 목록

□ 개 요

-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4개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지식베이스) 구축 과제의 사업수행계획 보고 및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착수보고회 통합 개최
- ※ 분야별 지식베이스 구축 방법과 세부내용을 각 기관 및 구축사업자가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식베이스의 원활한 공유 및 연계기반을 마련

□ 주요내용

- 일 시 : 2017. 6. 15.(목) 오후 4시 ~ 오후 6시
- 장 소 : NIA 서울사무소 14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무교동)
- 참석자
 - 부처 : 미래부, 법제처, 특허청
 - 연구참여기관 : NIA, 특허정보원, 법령정보관리원
 - 사업자 : 와이즈넷, 광개토연구소, 마인즈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 주요 내용
 - 지식베이스 구축 프로젝트 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과제별 주요 목표 공유 및 성과 창출방안 논의 등

□ 상세일정

시간	내용	비고
16:00~16:10(10분)	인사말씀	미래부, NIA
16:10~16:30(20분)	지식베이스 표준체계	솔트룩스
16:30~17:50(80분)	분야별 지식베이스 구축계획 발표	4개 과제당 약 20분 발표 및 토의
17:50~18:10(20분)	사업자 간담회	

□ 선정 과제

-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AI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지식베이스) 구축 등 지능정보산업 인프라를 조성
- 법률, 특허 등 주요 분야의 지식베이스를 구축·개방하여 지능정보 서비스를 촉진하고 양질의 지식베이스 축적으로 선순환 되는 AI생태계 구축

분야	컨소시엄 (참여기관)	주요내용
특허	광개토연구소 (솔트룩스 등) + 특허정보원	○ 전기·전자분야의 특허공보, 특허행정, 특허분류 등 특허 정보 원천 데이터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베이스 구축 ○ 이미지 기반 특허도면에 설명내용, 부호 등 태깅 정보 구축 ○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유망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특허가치 평가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전망
법률	와이즈넷 (비인텍) + 법령정보관리원	○ 창업인허가, 교통사고, 층간소음 등 생활용어 기반으로 법령 탐색을 가능하게 하도록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용어와 법률용어의 관계를 포함한 용어사전 구축 ○ 법령, 조문, 부칙 등 법령정보 기본단위에 연관법령, 생활용어, 판례, 상담사례 등을 태깅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베이스 구축 ○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법령정보 추천 서비스, 법률상담 챗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전망
일반상식 (위키백과)	마인즈랩 (포티투마루)	○ 한국어 위키백과, 우리말샘 한국어 사전, 역사·전통문화 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베이스 구축 ○ 역사·전통문화 및 우리말 활용 분야에 특화된 교육 챗봇, 인공지능 비서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전망
일반상식 (이미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휴먼아이씨티)	○ 한국인의 얼굴, 음식 이미지를 수집·촬영하여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태깅하여 구축 ○ 본인인증, 공연장 출입 관리 등의 신원확인 기술과 음식 검색, 열량 계산, 식단 추천 등 음식 인식 기술 등에 활용 가능

문체부 장관, 관광업계와 간담회 개최

- 관광정책 방향 공유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 의지 밝혀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6월 23일(금)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관광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도종환 장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 한국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광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한 관광 분야 협·단체, 인천 공항공사 및 코레일 등 항공·교통·여행사의 임직원, 벤처기업 대표자 및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두레* 피디(PD), 한국관광공사와 지역관광공사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관광두레: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체’를 구성하여 숙박·식음·체험 등 관광 사업(비즈니스)을 운영하고, 현장 기획자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

새 정부, 관광복지사회 실현 위해 관광분야 지원 의지 밝혀

도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관광복지사회 실현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국민관광 확대와 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정리하고 있다.”라며, 특히 “관광의 내실을 다져 우리 국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더 편안하고, 더 즐겁고, 더 감동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쉽표 있는 삶을 통한 국민의 행복한 일상 제공 위해 노력

도 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여행과 휴식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휴일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계층별로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행이 일상에 녹아들게 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쉽표 있는 삶을 통해 삶의 여유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관광정책이 지역 개발이나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광 산업으로서의 접근이 다소 부족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관광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관광벤처기업 육성, 관광두레 지원 등 관광기업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확대,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관광산업이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 시장을 다변화하고, 바가지요금, 품질 낮은 저가형 여행 상품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의 균형 발전과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을 지원해 관광산업의 질을 향상하고, 콘텐츠의 부가가치도 높여 관광의 흐름(트렌드)이 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관광을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분야로 논의하고,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관광업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마련, 추진

도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 사항을 들은 후 빠른 시간 내에 새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정리하고, 업계와 국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관광 편의를 더욱 높여 국민들이 관광을 통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이 저성장 시대의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종합 대책을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으로 스타트업 하라!

청년 창농에 50억 투자

- 농식품부, 롯데슈퍼·충청남도과 함께 친환경 청년농부 본격 육성
- 청년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6.22] 및 친환경 청년농부 공개 모집[~7.14]

《 주 요 내 용 》

- ◆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의 사업설명회 개최 (17.6.22)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17.6.15~7.14) 실시
 - 만39세 이하 청년 대상, 사업취지 및 신청조건, 지원방법 등 안내
 - 기업과 지자체, 선도농가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업 성공모델 마련
- ◆ 롯데슈퍼에서 생산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5년간 50억원 투입, 100여명의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예정
 - 청년농부 선발 후 지역공동체 조직화 및 선도농가와의 매칭교육을 통한 청년 창농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청년농부」로 브랜드화 하여 하반기부터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에서 판매 할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2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센터에서 충청남도, 롯데슈퍼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는 농식품부-롯데슈퍼-충청남도가 청년들에게 농지 및 하우스 등 생산시설과 판로를 지원하며 멘토농가의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창농을 돕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다.
- 이는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농업에서 찾는 민·관협업의 우수 사례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지난 4월 농식품부는 충청남도, 롯데슈퍼와 함께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생산·유통·교육지원반으로 구성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협의회를 조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친환경 청년농부의 사업대상자를 공모 중에 있다.
- 금번 설명회는 농식품부와 충청남도가 사업 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의 공모 신청을 유도하고 농업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 “청년,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청년 귀농 및 창농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과 선배 청년농부의 성공사례 발표 및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자본과 기술이 없는 청년들에게 생산시설과 판로, 선도농가의 멘토링 교육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귀농 애로요인 : 여유자금 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 귀농가구 평균 소득 : 평균 농가소득 3,722만원의 71.1% 수준

□ 아울러, 롯데슈퍼에서는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연간 10억원씩, 총 5년간 50억원을 출연하여 농업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청년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여, 「청년농부」라는 브랜드로 연내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 또한, 충청남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청년층의 친환경농업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대상자 공모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 (공고일) 6. 15 ~ 7.14 충청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
- 충청남도 내 4개 시군(아산, 논산, 부여, 홍성)에서 시행
* (대상자) 창업 단계(농업경영체 미등록자)와 육성 단계(농업경영체 등록자, 경영이력이 짧은 대상 우선)로 나누어 사업대상자 선발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차세대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금번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을 통한 성공 사례를 배출하여 이를 타 지체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1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개요

□ 목 적

○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청년층의 친환경농업 성공모델 육성 및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친환경 청년농부 육성프로젝트*」사업설명회 개최

* 만18~39세 청년 대상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지임대, 시설하우스 등 생산시설 및 판로 지원

□ 행사내용

- 일시·장소 : '17.6.22(목) 13:30 ~15:30, 정심화국제문화센터 대덕홀(충남대학교)
- 참석대상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신청 희망자(150여명)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충청남도
- 내 용 : 농업분야 청년일자리 육성 필요성 및 사례발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계획 및 공모 안내

□ 세부일정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3:00~13:30	30'	참석자 등록	
13:30~13:35	5'	행사 안내	사회자
13:35~13:45	10'	청년 창농 관련 동영상 시청	
13:45~15:30	95'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설명회	
▶ 13:45~14:00	15'	• 청년!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찾다 (청년농산업 및 귀농 활성화 방안 발표)	김귀영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
▶ 14:00~14:15	15'	• 청년농부 성공사례 발표	청년농부
▶ 14:15~14:25	10'	•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제안 배경 발표	김동하 (롯데슈퍼 신선식품상무)
▶ 14:25~14:40	15'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 안내	박지홍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장)
▶ 14:40~15:30	50'	• 질의응답 및 1:1 상담	

참고2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대상자 공모

□ 목 적

- 농촌정착 및 판로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유기농업 성공모델 마련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

-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유도

□ 추진경과

- 농식품부-충청남도-롯데슈퍼 간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17.4.12)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시군 관계자 설명회('17.4)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협의회 구성('17.4) 및 회의 개최('17.4~6, 3회)

□ 선발개요

- 연령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39세 이하인 자
- 주소기준 :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 주민이거나, 충청남도로 이전이 가능한 자
- 영농범위 : 친환경농산물(채소류) 생산
- 선발그룹 : 영농단계에 따라 선발하여 생산시설 및 판로지원
 - 창업단계(생산·판로지원, 50%이상) : 창농희망자(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육성단계*(판로지원, 50%미만) : 친환경농업 실천 및 전환 희망자(농업경영체 등록자)
 - * 영농단계를 창업단계, 육성단계로 구분하여 선발, 육성단계는 영농경력이 짧은 대상우선
 - * 제외대상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자
 - ②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향후계획

- 선발 및 교육훈련 : 청년농부 선발('17.7) 및 청년농부법인 조직·운영('17.8~)
- 브랜드 런칭 : 청년농부 브랜드 개발 및 판매 개시('17.10~, 롯데마트·롯데슈퍼 전점)

이낙연 총리, 첫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최 가뭄 추가대책 추진하여 전국적 가뭄피해 확대 방지에 총력

- ▶ 용수원 추가개발 및 가뭄지속 대비 수계연결 추진
- ▶ △보령댐 비상용수 공급 확대 △대산임해산단에 대체공급 확대
- ▶ 강릉, 동해 등 5개 지역 비상급수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교육·미래·국방·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안전처 장·차관, 권익위원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하여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였다.

○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 농업용수 대책 >

□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

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 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 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하여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
- 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하여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하여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한 정부보급 콩 종자 확보(256톤, 5천ha 가능)

* 대체작물 판로확보를 위해 콩 수매물량 확대(25천→30천톤) 및 논 콩 1만톤 별도 수매

○ 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하여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IV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17년 : 11지구 5.3천ha 준공)하고,

-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ha)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

○ 한편,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 아산호에서 ①삼교호-대호호(14km, 22천ha), ②안성 금광·마둔저

수지(28km, 2.4천ha)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하여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하여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 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 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 '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하여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업·댐용수 대책 >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 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하여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3.25~), 급수체계조정(6.1~)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여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III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 생활용수 대책 >

□ 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

* 용수공급 제한 예상시점(무강우시) : 강릉시(7월초), 동해시(7월말), 속초시(7월중순), 영광군(7월중순), 공주시(7월초)

-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 도서지역 : 인천 소연평도 등 18개 도서 4,984명 운반급수 및 병입수 공급

* 내륙지역 : 경기 광주시 등 31시군 9,318명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 시행

- 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 「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하여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7~'28년, 3조 962억원 투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17년 279개 마을 19.1만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뭄대응 지원 대책 >

- 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 (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건설협회, 지하수지열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전력공사 등

-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정보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문제 해결”

한국고용정보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일자리정보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홍)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김명준)는 6월 22일(목) 오후 3시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일자리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산업과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정책과 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미래부 산하기관

- ☐ 두 기관은 ‘맞춤형 일자리정보 서비스’의 공동 기획 및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원활한 취업준비를 돕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고용정보원은 ‘맞춤형 일자리정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고용정보원이 갖고 있는 구인·구직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정보로 가공한 후 일자리정보 시스템에 제공한다.

- ‘맞춤형 일자리 정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과 조건에 맞는 회사를, 구인 기업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적합한 인재를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

- ☐ 두 기관은 앞으로 일자리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교육서비스 관련 데이터도 공유해, 국민 개인 역량에 맞는 교육서비스 추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 ☐ 이재홍 고용정보원장은 “두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정보 서비스가 제공되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정보
미스매칭 문제 해소와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의 자녀 양육정보, 정기적인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영아기 양육정보 제공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의 하나로, 영아기(0~24개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전문가들이 선별해 정리한 핵심 양육정보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자녀 양육정보 뉴스레터’는 여성가족부가 대한정신건강재단(이사장 정한용)에 위탁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들의 참여로 제작된다.
- 제작내용은 영아기 긍정적인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발달 촉진에 필요한 양육정보, 양육태도, 발달특성에 관해 놀이·애착·스마트기기 사용 등을 주제로 총 12편에 담았다.
- 지난 5월 ‘제1편 놀이’의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나머지 11편을 순차적으로 제작·제공하게 된다.

[자녀 양육정보 주제 구성(안)]

연번	0~12개월	13~24개월
1	놀이	애착
2	건강한 생활리듬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3	애착	스마트 기기사용
4	부모가 되는 마음	형제 자매가 생긴다면
5	심리사회적 발달 이정표	기질(예민한 자녀)
6	인지발달	훈육

* 각 주제별로 더 적합한 해당연령을 구분하였으나, 0-2세 부모님 모두에게 도움이 됨

- ‘자녀 양육정보 뉴스레터’는 ▲네이버 ‘맘·키즈’ ▲한국교육방송(EBS)의 ‘육아학교 핀(Pin)’ 앱, ▲여성전문 앱 ‘핑크다이어리’ ▲그 외 부모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제공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자료실(좌측 하단 메뉴) → 부모교육자료

- 또한, 정기적으로 자녀 양육정보를 받아보길 희망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parenteducation@naver.com)로 제출하면, 기재한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뉴스레터가 발송된다.
- 여성가족부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지침서)과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평창 올림픽 지원도로 여름 휴가철·추석 이전 속속 개통 6월 말 동홍천~양양·9월 안양~성남 고속도로 개통 등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

-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준비가 도로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한창이다. 오는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연휴에 평창에 가서 실제 경기가 이뤄지는 주요 시설을 구경하고자 했으나, 가는 길이 여의치 않아 주저했다면, 이번에 조기 개통되는 도로가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자체와 함께 올림픽 경기장 등 주요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7조 7,672억 원*을 투입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328km를 계획했고 한창 건설 중이다. 각 도로의 공사 상황에 따라 가능한 구간은 올해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연말까지는 전체 구간이 개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 7조 2,606억 원(272km), 지자체(강원도·강릉·평창): 5,066억 원(56km)

- 여름 휴가철 이전에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영동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횡성~평창 간 국도6호선 일부 구간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 6월에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 추석 절 이전에는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성남~장호원 노선 일부를 개통시킴으로써 지난해 개통한 광주~원주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인천에서 원주 간 고속도로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 인천 ~ 안양(제2경인고속도로) ↔ 안양 ~ 성남(민자고속도로) ↔ 성남 ~ 광주(자동차전용도로) ↔ 광주 ~ 원주(민자고속도로)

** 인천공항~평창 주경기장 : 3시간 30분 소요(영동고속도로 경유 보다 20분 단축)

- 한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 사업과 나머지 국도 사업도 재정 집행 및 공정관리 점검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연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백현식 간선도로과장은 “도로의 조기 개통을 통해 세계적인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휴일에 찾아갈 수 있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3

지자체 관리도로 현황

□ 지자체 관리도로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억원)	착수일	준공 (예정)일	추진현황
계	16개소		5,066			
강원도 (7)	진부-횡계IC (지방도456호선)	7.2km (2, 4차로)	330	'13.2	'17.11	실적 74% (계획 73%)
	면온IC-보광 (지방도408호선)	5.5km (2차로)	222	'14.5	'17.11	실적 68% (계획 68%)
	월정삼거리-차항 (지방도456호선)	7.2km (4차로)	619	'16.9	'17.12	실적 38% (계획 33%)
	싸리재-용산 (군도13호선)	4.2km (4차로)	540	'14.12	'17.11	실적 50.3% (계획 47.5%)
	용평알피안경기장 진입도로	2.54km (2차로)	127	'15.3	'17.5	실적 87% (계획 88%)
	진부-횡계 (진부역연결도로)	9.03km (2차로)	990	'16.1	'17.12	실적 68.3% (계획 64%)
	차항-횡계	3.19km (2차로)	287	'16.6	'17.12	실적 36.7% (계획 30%)
평창군 (5)	유천-수하 (군도12호선)	1.75km (4차로)	271	'15.1	'17.6	실적 89.8% (계획 90.8%)
	용산-횡계 (농어촌205호선)	2.9km (4차로)	324	'15.1	'17.7	실적 90.2% (계획 91.0%)
	수하-횡계 (농어촌209호선)	1.36km (2차로)	127	'15.2	'17.7	실적 86.8% (계획 86.6%)
	유천-용산 (군도12호선)	2.92km (2차로)	149	'16.2	'17.11	실적 39.2% (계획 40.1%)
	진부IC-호명교	2.2km (2, 4차로)	307	'16.5	'17.12	실적 50.1% (계획 53.0%)
강릉시 (4)	선수촌-경기장	2.2km (2~4차로)	182	'16.4	'17.10	실적 60% (계획 60%)
	강릉원주대- 죽헌교차로	1.5km (4차로)	211	'16.4	'17.10	실적 80% (계획 80%)
	강릉역-경기장	0.94km (4차로)	301	'16.8	'17.11	실적 63% (계획 65%)
	강릉올림픽파크 진입도로	1.39km (2차로)	79	'15.5	'16.10	완료('16.10.30)

전 세계 해사분야 전문가 모여 해사 미래 논의한다

- 해수부, 27일(화)부터 30(금)까지 부산서 '한국해사주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6월 27일(화)부터 6월 30일(금)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한국해사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와 정부기관, 국내외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 (6.27~29) 정책·산업·학술포럼 / 해운대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
(6.30) 모의 IMO 총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층 다목적강의실

한국해사주간은 2007년부터 개최해 온 국제해사포럼과 2013년부터 개최해 온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등을 연계하여 올해 처음 진행되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와 주요 석학들이 참여하여 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6월 27일(화)에는 해사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이행'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제해사기구·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와 미국·덴마크 등 각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선급 등 민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후 참석자 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수) 열리는 산업포럼에서는 올해 9월 8일 본격 발효될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이행방안을 주제로,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산업 동향 및 미국의 선박평형수 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선박평형수협약 이행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해외 선주들을 초청하여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9일(목)에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미래의 해사정책’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①국제기구와 정부의 역할 ②항해 관련 주요 현안 ③해양환경 보호와 행정이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10개 대학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온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사주간 마지막 날인 30일(금)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다루는 해사안전, 환경, 법규, 정책 등에 대하여 국내 대학생들이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의 국제해사기구 총회’ 본선대회가 진행된다. 대회 종료 직후 현장심사를 통해 총 11개 팀*을 시상하며, 대상 1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 본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상장 구분		수상	시상내역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1팀	상금 500만원 + IMO본부 견학
최우수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	1팀	상금 500만원
우수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	1팀	상금 300만원
특별상	기타 후원기관장상(8개)	8팀	각 상금 150만원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해사주간에 새로운 선박 환경 규제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하여 해사분야 미래 이슈를 선점하고,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